국제 금융 속보

국제금융센터
Flash News
2022. 7. 23

황재철 | 부전문위원(제 6266)

■ **주요 뉴스:** 주요국 7월 구매자관리지수(PMI), 본격 수축국면 진입으로 리세션 우려 점증

○ 주요 ECB 위원, 전일 통화정책 결정을 설명하면서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 시사

○ 러시아 중앙은행, 기준금리 150bp 인하. 러시아 원유 상한제 참여 국가에 공급 중단 시사

○ 분데스방크, 독일의 물가상승세가 향후 수개월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국제금융시장:** 구매자관리지수 하락에 따른 경기불황 우려로 위험선호 강화
주가 하락[-1.0%], 달러화 약세[-0.5%], 금리 하락[-15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기술주 상승세가 꺾이면서 4일만에 하락 전환
유로 Stoxx600지수는 구매자관리지수(PMI) 하락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불구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PMI 지수 하락에 따른 금리인상 전망 후퇴로 하락
유로화 가치는 -0.2% 하락한 반면 엔화가치는 0.9%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리세션 우려가 증폭되며 급락
유로존 주요국의 국채 금리도 경기 우려로 큰 폭 하락

※ 원/달러 1M NDF환율(1309.9원, +3.2원) 약보합, 한국 CDS 보합

		7/22일	7/21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3961.6	3,999.0	-0.93%
	유럽	425.71	424.39	0.31%
	중국	3269.9	3,272.0	-0.06%
	일본	27915	27,803	0.40%
	한국	2393.1	2,409.2	-0.66%
환율	달러지수	106.73	106.59	-0.17%
	유로화	1.0213	1.0230	-0.17%
	엔화	136.12	137.36	0.91%
	위안화	6.7515	6.7668	-0.23%
	원화	1,313.0	1,307.7	-0.40%

		7/22일	7/21일	전일대비
국채금리 10y	미국	2.75%	2.87%	-12bp
	독일	1.03%	1.22%	-19bp
CDS 5y	한국	47bp	47bp	0bp
	중국	82bp	83bp	-1bp
위험지표	EMBI+	-	472	-
	VIX	23.03	23.11	-0.35%
원자재	WTI유	102.26	96.35	6.13%
	구리	334.9	330.2	1.41%
	금	1,727.6	1,718.8	0.51%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종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및 유로존 7월 구매자관리지수, 본격 수축국면에 진입하며 리세션 우려 점증**

○ 미국의 경우 서비스업 PMI가 전월대비 5.7pt 하락하며 2년만에 처음으로 수축국면(47.0)에 진입. 제조업 지수는 52.3으로 확장국면에 있으나, 종합 PMI는 전월대비 4.8pt 하락한 47.5로 25개월만에 수축국면 진입

○ 구매자관리지수를 발표하는 S&P社는 인플레이션, 금리인상, 경기둔화 우려가 펜트업 수요를 억누르고 있으며, 이는 서비스업 PMI의 급락으로 이어졌다고 분석. 7월 PMI 하락이 리세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전망

○ 유로존 7월 종합 PMI도 전월대비 2.6pt 하락한 49.4를 기록하며 `21.2월 이후 수축국면에 재진입. 서비스업(50.6)이 확장국면에 위치한 반면, 제조업(49.6)이 수축국면을 나타낸 상황

○ 러시아 가스공급 중단과 고물가 기조 등이 유로존 제조업 경기를 급냉각 시킨 가운데, ECB가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함에 따라 리세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 한편 영국은 7월 종합 PMI가 52.8로 전월(53.7)보다는 하락했으나, 예상치(52.4)보다는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여타 서방국가들과는 차별화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주요 ECB 위원, 전일 통화정책 결정을 설명하면서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 시사**

○ 빌루아 ECB 정책위원, 변속보호기구(TPI: Transmission Protection Instrument)가 자동적으로 발동하는 기준은 없으며 앞으로 금리인상은 빠르게 진행할 예정

○ 뮬러 위원, 금리인상으로 성장이 둔화되는 것은 피할 수 없으나 물가 상승하는 것을 방관하는 것이 보다 큰 문제. 다만 금리인상을 단행하더라도 물가를 단기간에 낮출 수는 없을 전망

○ 렌 위원, 향후 금리 결정은 경제 데이터에 따라 진행될 것.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가 현재까지는 보이지 않는 상황

○ 나겔 위원, 통화정책 정상화가 필요한 시점이며 21일 ECB 금리인상은 바람직. 금년 및 내년 유로존 경제가 플러스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카지미르 위원, 다음번 통화정책회의에서도 25bp 혹은 50bp의 금리인상이 가능. 유로존과 글로벌 경제에 따라 유동적이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추가 금리인상이 당연하다고 언급

■ **러시아 중앙은행, 기준금리 150bp 인하. 러시아 원유 상한제 참여 국가에 공급 중단 시사**

○ 기준금리를 시장 예상(50bp 인하)를 웃도는 8.0%로 결정. 금번 결정으로 러시아 기준금리는 러-우 전쟁 이전 수준보다 낮아진 가운데 향후 통화정책 회의에서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

○ 나비울라 총재, 미국이 주도하여 러시아 원유 가격에 대한 상한 설정을 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하며 상한제에 참여하는 국가들에 대한 원유 공급을 중단할 예정. 상한선을 설정할 경우 글로벌 유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 한편 러시아 자체적으로 원자재 벤치마크 가격 설정 작업을 진행중임을 언급

■ **분데스방크, 독일의 물가상승세가 향후 수개월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월간보고서를 통하여 정부의 임시 지원 조치가 종료되는 9월에 독일 물가가 가속화될 수 있음을 경고. 또한 러시아 가스공급 조치가 독일 경제에 위협으로 작용하며 3분기 성장률은 2분기보다 저조할 수 있다고 예상

■ **스냅社, 실적 부진으로 주가 39.14% 급락**

○ 동영상 기반 소셜 미디어 플랫폼 스냅챗 운영사인 스냅의 2분기 매출이 $11.1억을 기록하며 예상치($11.4억) 하회하며 주가 급락을 야기. 동사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으로 인하여 광고 수입이 급감했다고 발표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7/24 현지시각 기준)**

○ 미국 7월 달라스 연은 제조업 지수, 독일 7월 IFO 지수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053, E-mail jchwang@kcif.or.kr